

잭 머레이, 느헤미야, 강의 1

Courtney Stevenson 작성, 2008년 Gordon College

성경전도(Bible Evangelism)는 잭 머레이 박사(Dr. Jack Murray)의 강해설교를 다시 한 번 소개합니다. 구세주를 높이고 듣는 사람인 당신을 축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강

여기 Jack Murray 박사가 있습니다:

소개 우리는 오늘 아침 5시에

성경 공부에 관한 다소 특이한 책을 다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네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부분은 문자 "V"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분할은 본질적으로 두 배입니다.

기도 속의 비전

첫 번째는 “기도 속의 비전”입니다. 모두가 “기도 속의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1장에만 해당됩니다. 1장은 전체의 축소판이다. 1장에서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실제로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아침에 갖게 될 1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에게 전체의 축소판을 제공할 것이며, 느헤미야서 전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실을 위해 용감하고 싸움에 용감하게

그런 다음 두 번째 분할은 두 배입니다. 그 이름은 "진리를 위해

용감하다"입니다. 이 단어는 예레미야서 9장 3절에 나와 있고 "싸움에 용감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가 긍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즉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표현인 "Valiant in Fight"입니다. 하지만 둘 다 매우 매우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서 2-7장은 두 가지 개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1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제사를 받지 않을 테니 너무 걱정하는 표정은 짓지 마세요. 지갑이나 지갑 속에 1달러짜리 지폐가 들어있다면, 꺼내서 잠시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거대한 미국 독수리 엠블럼의 바닥을 보면 새가 한 손에는 올리브 가지를 , 다른 손에는 화살 묶음을 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상징에 대해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올리브 가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평화. 화살 묶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전쟁과 전쟁 준비. 따라서 우리 국가 그림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표현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주의 깊게 포장되어 있고 "이쪽이 위를 향하고 깨지기 쉬움"이라는 도장이 찍힌 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신을 위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당신이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싸움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전쟁, 곧 선한 싸움에 참여하였느니라 혹은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느헤미야 2-7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미국 독수리나 올리브 가지나 화살 다발이 아니라 흉손과 칼로 그들을 상징할 수 있었습니다. 흉손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건물. 전투를 상징하는 검. 그곳에는 건설과 전투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현실주의자이지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물을 발견하는 대로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건축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다 읽을 때쯤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

신약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식민지 도시인 빌립보에 갔을 때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의 습관은 대개 회당에 가서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수가 오랫동안 약속되었고 기름부음받은 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이지만 당연히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강가에서 몇몇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바울이 설교하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행 16:14)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집 전체가 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루디아 집안은 빌립보 초기 교회의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말합니다. “오, 단지 과수원에 가서 올바른 다림줄을 만져 손에 직접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기독교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런 기독교 사역을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이야기를 멈춘다면 그 이야기의 일부만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그 도시에서 한 초막을 지나갔는데 거기에는 귀신 들린 소녀가 있었는데 귀신이 말하되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보이려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길이니라”(행 16:17). 이 악마의 증언은 바울을 짜증나게 했고, 그래서 그는 그 소녀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며 그 악마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말했고, 이 소녀의 이상한 미래 능력은 영원히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환상적인 예언으로 큰 부를 얻은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삼중 거짓 고발로 고소한 다음 그들을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곳도 깊은 감옥에서였고,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외친 곳도 깊은 감옥에서였습니다. (행 16:30). 당신은 “나는 그런 식으로 허리에 피를 흘리며 감옥에 갇힌 채 기독교 사역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그분의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는 긍정적인 행동, 건설, 아름답고, 만족스럽고, 사랑스러운 장면입니다. 많은 기독교 사업이 그런 식이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 사역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투 중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철장막 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고, 대나무 장막 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고, 사탕수수 장막 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전쟁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진리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요 내용은 물론 신약성경에 확대되어 있지만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 그 기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흥의 승리

이제 개요의 세 번째 분할로 이동하겠습니다. 그 구분이 8-12장인데 우리는 그것을 “부흥의 승리”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부흥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부흥의 승리” 8-12장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조금만 통찰력을 가지면 대부분의 성경 교사들이 느끼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부흥이라고도 알려진 대중의 영적 각성의 가장 훌륭한 예라고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환상적인 그림이다. 1장에서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서는 약 50,000명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요일에 "부흥의 승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제 부흥이 승리한만큼 우리는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끝내는 방법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끝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13장 역시 단일 부분으로, 이 책의 네 번째 부분이며,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경계"라고 부릅니다. 8-12장에서 이룬 대부흥은 13장에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책은 경계의 메모로 끝납니다.

좋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이 개요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은 일반적으로 전체 개요를 제공한 다음 세부 사항을 작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게 될 몇 가지 세부 사항을 1장에 넣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완전히 편안하고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매 시간이 끝날 때마다 몇 분씩 시간을 내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 수업을 들으면서 무언가를 생각한 다음 "오, 아니, 그건 묻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어리석은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약 5분 후에 어떤 조커가 같은 질문을 하고 교수는 "그건 훌륭한 질문이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모든 영광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질문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나에게는 다섯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5명의 자녀, 즉 아들 셋, 딸 둘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였을 때 나는 뭔가를 했고, 내 종족이 내 말을 듣기를 바랐습니다. 팝송을 듣는 것이 항상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를 따라와서 개요를 작성하시겠습니까? . 그리고 그 개요가 맞다면 25센트, 20 센트, 2마르크, 15센트 , 10센트 미만 은 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아침 예배 후에 목사관까지 차로 7마일을 운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티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스티브는 오늘 롱 아일랜드 가든시티에 있는 미국 알루미늄 회사의 관리자입니다. 저는 스티브에게 "스티브 포인트 1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포인트 번호를 가지고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 "훌륭한 아들!" "그럼 두 번째 점 Sarah는요?", "아빠, 잘 못 알아들었어요." 프랭크는 "나도 그러지 않았습시다"라고 말했습니다. George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왜 듣지 않았어!?"라고 말하지 않았습시다. 나는 Jack이 그것을 놓쳤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놓쳤습시다. 그들이 당신에게 투표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다지 명확하지 않았습시다. 나는 아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시다. 그리고 저는 일하는 법을 배웠습시다. 사실 우리가 십자군 전쟁에서 듣는 가장 많은 논평은 "당신의 가르침은 매우 간단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사과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싶다. 약 한 시간 전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14년 전에 주었던 일련의 모임의 전체 개요를 당신에게 밝힐 때, 그것은 일종의 겸허해지는 경험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시다. 이제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나는 우리가 아침에 이곳에 있는 동안 영감을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가르침을 원합니다. 여기 스코틀랜드 사람 있나요? 나는 당신의 뼈에 불을 죽을 먹고 싶습니다. 여기에 오토밀이 좀

들어있어요. 상당한 양이죠. 물 위의 흐름이나 물 위의 거품이 아니라
밑에 있는 깊은 흐름을 통해 이 위대한 책의 진실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시대: 유배 기간 이후

자, 이제 우리는 공부에 들어갑니다. 지금 성경을 들고 느헤미야서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구절이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제 이십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었더니”(느 1:1).

자, 이제 여러분을 찾아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포로 이후 기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우리는 소위 70년의 포로 생활 직후의
기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배도 때문에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 그분은 70년의 심판으로 그들을 처벌하셨고, 이 70년 후에 즉시 우리는 활동하게 됩니다. 이제 이 활동은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오기 한 세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포로 이후의 책들이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그리고 물론 창립 선지자 학기, 사가랴, 말라기도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서에서 우리는 고레스의 법령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왕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곳. 그리고 그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스라서의 처음 여섯 장에는 두 명의 뛰어난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이 일은 느헤미야보다 거의 1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정부 지도자인 스룹바벨, 제사장 지도자인 여호수아. 기억하시겠지만 이 두 사람이 왔고 약 50,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3장에서는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기쁨이 있었고 울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의 기초, 포로 이후의 성전, 또는 학계에서 우리가 부르는 두 번째 성전 기간은 솔로몬의 대성전보다 열등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엄청난 아름다움을 기억했던 노인들 중 일부는 울었지만(스 3:12) 그것은 참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반대하여 건물이 멈추고 기초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명의 강력한 복음 전파자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은 격려의 선지자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학개였는데, 그는 책망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 유배자들의 무리에
들어와서 그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6장이 끝날 무렵에는 포로 생활
이후의 성전이 완성됩니다. 이제 이것은 다시 느헤미야 사건이 일어나기
약 70년 전이며, 그 다음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0년 내지 60년
동안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7장, 8장, 9장부터
시작됩니다. 에스라서 10장에는 에스라의 실제 사역이 있습니다. 그가 더
작은 부대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제가 에스라서를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 네 장은 예루살렘에서의 엄청난 영적
움직임을 드러내는 위대한 부흥의 책임입니다

. 그 후, 에스라서 끝부터 느헤미야서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만날 때까지 12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이제는 그것이 너무 빠르지 않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 이후의 활동이 있는 지 약 100년이 지난 지금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 1장에서 그가 수산궁에 있었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수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그는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장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음이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

이제 "왕의 술 관원장"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단순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남자 웨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 궁정에서 가장 신뢰받는 구성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동무인 다니엘과 같았습니다. 그는 죽음과 왕 사이에 여러 번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중독, 음모, 수많은 음모에 의해. 느헤미야는 방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의 현장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니! 느헤미야는 매우 뛰어나고 탁월하며 성취가 있고 부유하고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이 책은 설교자에 관한 책도 아니고, 제사장에 관한 책도 아니고, 선지자에 관한 책도 아닙니다. 그는 평신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한 평신도입니다.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증명하겠습니다. 그는 지위, 부, 편안함 등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공과 사슬에 묶인 그의 모습을 상상하지 마세요.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니엘보다 더 이상 공과 사슬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탁월했고 매우 뛰어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에 정한 다니엘의 기록이 아니니라 여기 성숙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이 아닌 뛰어난 능력을 갖춘 리더로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자신의 지도력을 제외하고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지도력의 교훈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 어떤 독신자보다 아마도 이 사람의 삶에서 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여러분 중에 리더십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느헤미야를 공부하십시오.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그 점을 여러분에게 확신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이제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내 형제 중 하나니가 유다 두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왔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도망한 유다 사람의 형편과 사로잡힌 자 중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하여”(느헤미야 1:2). 이제 분명히 느헤미야의 친형은 다른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 여행에 대한 기록 중 하나는 4개월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페르시아의 수도로 돌아왔고 여기에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거나 관심을 가져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페르시아에 꽤 정착하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상황에 대해 경건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3절, “백성들과 사로잡혀서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니 예루살렘 성벽은 헐리고 성문들은 다 헐리고”(3절). 불에 살랐느니라”(느헤미야 1:3). 이제 나는 거의 모든 구절을 한 시간씩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5번의 교육 기간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였을 때 교회에서 4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를

빠뜨려야 한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3절의 강조점을 주목하세요. 먼저 사람이었고 그 다음은 벽돌이었습니다. 시설 이전에는 사람의 기능이었습니다. 그것은 건축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영적인 일을 강조한 것입니다.

“영적 각성을 위한 준비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제 내 New Scofield Reference Bible의 맨 위에는 항상 주제가 있는데 나는 이 New Scofield Reference Bible의 주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내용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주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다. 당신은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야?"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님! 그것만 빼고는 불완전합니다. 성벽 을 완성하는 데만 52일이 걸렸습니다

. 우리가 연구할 기간 동안 느헤미야의 임기는 12년이 걸렸다. 2개월과 12년 사이에는 상당한 비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주일학교를 읽으면 느헤미야가 영광스러운 계약자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벽돌을 쌓거나 벽을 쌓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그랬지만 훨씬 더 큰 것을 가져오기 위해 우연히 그랬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추가했습니다. 아마도 위원회에 편지를 써서 제안할 것입니다. 나의 주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영적 각성을 위한 준비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이 아름다운 강당은 단지 나무, 회반죽, 유리,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는 동안 휴거가 일어난다면 이 방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강당은 여전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동안 여름에는 햇빛을 피하고 편안하게 하며 겨울에는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이 당신의 교회 건물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 나무에는 숲에서 가져온 다른 어떤 나무 조각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책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의자에 앉아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능보다는 시설을 강조하는 것에 좀 질렸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그곳의 아름답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아름다운 교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으로 뭔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힘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름다운 건축가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장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은 전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잘못된 강조를 하지 마십시오. 마음 속에 벽을 쌓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서에는 성벽을 쌓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남은 자요 그 다음은 백성이요 그 다음은 성벽이요 그 다음은 성문이요

느헤미야의 반응

알겠습니다 .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그는 어깨를 살짝 으쓱하고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친. 여기 나는 포로된 사람들의 포로입니다. 나는 내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곳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성을 결정했지만 이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이제 4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경건한 관심이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무엇을 하겠느냐? 울고 애통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니”(느헤미야 1:4). 그 구절에는 꽤 많은 내용이 있지 않나요? 미국 근본주의는 금식의 몫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걸쳐 그리스도의 몸이 금식의 몫을 잃었다는 것을 결코 믿지 마십시오. 나는 영적인 추구를 위해 소위 필수 식량이 비축되어 있는 선교 지역으로 여러분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나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얻기 위해 그들의 고유한 것을 가져가서 지나가게 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잠자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진리의 측면에서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영적으로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폐허를 보고 눈물을 흘리기 전에는 누구도 성공적으로 성벽을 쌓을 수 없다”고 말한 위대한 해설자이자 위대한 맥라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배도의 날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사로 있을 때, 우리는 필라델피아에서 최고의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들이 그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백 명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이 멋진 잭 아닌가요?”라고 말하곤 했지만, 기대했던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훌륭하지만 50년 전에는 필라델피아에 100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 슬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예배를 마친 후 차를 타고 Broad Street을 따라 내려가거나 Market Street 또는 Chestnut Street 또는 Walnut Street를 따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위대한 시설을 보는 것은 기도와 희생, 그리고 일요일 밤에 빛을 거의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은사에 의해서입니다. 오른쪽? 아, 그렇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래서 뭐? 너무 나쁘지 않은가, 다른 날이다. 느헤미야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끔찍한 영적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당신이 실제로 하나님의 사역의
형편을 슬퍼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말로 당신에게 속한 것을 포기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해야 할 일을 달성하기 위해?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 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싶고 느헤미야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는 걸 아시잖아요. 나는 수년 동안 그에 대해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왔고, 하나님께서 계시하기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에 대해 뭔가 말했을 때. 이제 몇 단어만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노트에서 읽지 않지만 여기에 쓴 몇 단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산에서
그에게 보여진 사물의 패턴, 곧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지 않고 평지와
다진 길을 따른다고 느헤미야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위에 있는 세상을 스스로 차지할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밀을 끊임없이 활용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고독이
없으면 수행해야 할 일에 대한 큰 비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인간이 세상의 소음과 소음을 넘어 무너지고 현실이 될 패턴의 영역으로
들어 올려지는 곳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일이 산에서 기도하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박합니다. 모세에 관한 그 표현을
기억하십니까? 마운트의 패턴입니다. 모세가 성막에서 행한 모든 것은

산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환상의 산에서 계곡으로 내려오셔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아침 느헤미야와 환상의 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들판에 나가서 등을 대고 누워서 풀짚을 뽑아 이빨에 꽂고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15분 동안 그 짓을 하면 그 부모가 정신과 의사를 부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개인으로서 당신은 오직 당신만이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흰색이 어디에 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젊든 늙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해야 할 특별한 일을 갖고 계시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것을 발견하고 행하도록 도와줍니다.

나에게는 다섯 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들은 모두 서로 다르며 우리에게 대해 부분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다섯 명 모두 대학에 다녔지만, 각자 다른 대학에 다녔습니다. 즉, 이 방법. 나는 그들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대학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아주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매우 다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한 사람에게서 우리는 그 사람의 운명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께 느헤미야만큼 중요합니다. 내 말 들었어? 당신은 잊혀진 아히도벨, 잊혀지지 않은 다윗, 저명한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주님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자리를 갖고 계십니다. 이제 나는 느헤미야처럼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 책에서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달성한다면 아주 성공적인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한 젊은 친구를 아시죠. 제가 다른 메시지에서 이것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콜롬비아에서 한 젊은 친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나는 그를 바라보며 “아니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3년 전에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시켰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두가 납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들을 위해 독특하고 독특하며 낭만적이고 모험적인 삶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번 주에 여러분 중 몇몇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좋아, 이제 그 사람은 뭘 할 건데 ? 글썄요, 그는 기도할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네 단어가 오늘 아침 칠판에 붙였습니다. 모두들 “전화”, “고백”, “주장”, “확신”이라고 말하세요. 이제 이것은

1장 5-11절의 매우 간단한 단어 개요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분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좋아하길 바라며, 여러분이 깊이 파고들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다른 많은 책에서 여러분의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은 단지 여기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에 없는 것을 가져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는 교회에 있는 내 사람들에게 내가 네 개의 다른 교회의 목사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어떤 말을 듣게 된다면, 그들은 통로에서 나를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열린 성경. 아멘, 도전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과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밝힐 권리가 있습니다.

부르다

이제 전화해 보세요. 그 기도문의 첫 한 구절 반을 읽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전반부에서 “말하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구하옵나니”라고 했습니다. 계명. 이제 주의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떠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나이다” (느헤미야 1:5).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느헤미야 신학에 대한 철저한 연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는 하늘의 삼촌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위층에 있는 형을 데리고 가지 않을 거예요. 그는 유비쿼터스 친구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요,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니 그 안에는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진리가 있느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에서 더할 나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높이 들리워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신에 대해 그토록 높은 견해를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그토록 낮은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높이 들리시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학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는 성령에 관한 모든 위대한 가르침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모든 핵심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성경도 신학의 책이며 하나님 자신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어떤 의미에서든 삼위일체를 분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그의 임재 앞에 있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그분이 무엇의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 줍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것,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

그리고 그는 신이에요 뭐? 사랑의. 당신은 신약성서의 설교자를 말합니다. 당신에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시되었으며 서신서의 모든 가르침에서 확대되었습니다. 성경은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성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기 느헤미야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랑하셨고,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가끔 그들은 나를 전도사로 불러들여 책이 영적인 각성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서류 가방에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흥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시작해야 할 곳, 즉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더 잘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16:33). 그게 적절한 우선순위죠?

고백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글썄요, 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있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비교할 수 있으며 그들 중 일부, 어쩌면 그들 모두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임무는 당신이 다른 사람과 같은 수준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에 있던 이 마음을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이사야는 그 높고 높은 환상을 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슨 사람입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내 눈이 왕을 뵈었음이다.”(사 6:5)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무엇을 시작하였는가를 봅니다. 그의 죄를 자백하라 그가 이르되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 만일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 흠으리라 하셨느니라

백성들”(느 1:6-8)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고백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기꺼이 용서를 구해야 하며 겸손하고 서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개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죄는 군중의 측면이었고 고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고백하고 올바른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모임에 참여해 봤습니다. 정말 좋은 모임이죠. 나는 12시간 동안 모임에 참석했고, 사람들은 모인 교회 전체와 올바른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기 위해 2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고백입니다.

주장하다

하지만 잠깐만요, 빨리 넘어가세요. 단어는 "주장됨"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설교자님, 저는 하나님께 참된 성경적 각성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고 제가 아는 한 모든 것을 피 아래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의롭습니다. 나는 남자와 옳다. 난 완벽하지 않아. 나는 용서받고 깨끗해졌는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은 멈췄고 곧 멈췄습니다. 왜? 부흥의 다음 단계, 느헤미야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여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를 따라가고 싶나요? 여기에 주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음 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쫓겨난 자가 하늘 끝까지 있을찌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느헤미야 1:8-9). 잭은 무슨
뜻인가요?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범죄하면 벌할 것이요, 순종하면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감상하게 될 유쾌하고 작은 일일 묵상 책입니다. *Streams in the Desert*, 당신은 책 전체 의 가치가 있는 문장을 찾을 것입니다 .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시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라고 말해 보세요. 이제 이것은 이상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하는 삶의 더 깊은 측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성경에 나오는 것이며, 기초가 되는 진리입니다. 이 방에는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며, 성경적 권위 없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비판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다가와서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글썄요, 나도 그런 느낌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게 내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잃어버린? 한 어린 소년이 내 모임에 왔을 때 나는 "아들아,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마음을 열고 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라고 요청했습니까? 어떻게 알았어? “아, 속이 다 깨끗한 것 같아요.” 나는 그 소년을 혼자 둘 수 없었다. 왜? 내일 아침이면 그는 속이 온통 더러워진 것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 길을 잃었다가 오늘 아침에 구했다는 뜻인가요? 아니, 나는 그에게 다시 돌아와서 아들아, 어떻게 알아?라고 말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들어오라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아세요? 글썄요, 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요청하셨나요?" 그 사람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는 마치 내가 그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 가장 멍청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로 나는 이것을 의미한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내 딸 사라가 그와 의논한 후에 그를 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왔고,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소년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구절은 "믿음은 느낌에서 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성서에서 감정을 믿었던 사람은 단 한 명 있었는데 그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소년이라고 느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한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낌은 매우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이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기초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왜 그것을 버리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장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장하면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성경 구절이

당신을 지옥에서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면, 당신이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그것은 당신이 계속 승리할 수 있게 해 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리지 마시다. 이것은 오래된 진리이지 기독교인의 삶의 어떤 새로운 측면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주님,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를 다시 데려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말할 때 나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믿음, 강한 믿음, 약속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불가능을 비웃으며 이루어질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외칩니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외칩니다. 불가능을 비웃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외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곳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포로로 잡혀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것입니다.

약간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유머 감각이 대단한 걸 알잖아요. 몇 년 전, 저는 뉴욕에서 기차 사이에 들르곤 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34번가 역에는 그곳에 있는 것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 나는 항상 오래된 기차를 좋아하지만 어쨌든 나는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매표소와 중앙 홀 사이에 문이 줄지어 있었는데 그 날 모든 문이 그 작은 소리로 열렸습니다. 광선, 기억나? 어떻게 그 작은 빛의 콩을 얻었고, 그 빛을 깨뜨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문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보곤 했는데, 중앙
홀을 가로질러 가는 사람들은 스무 명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 저를 가장 즐겁게 했던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경의를 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 그들은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고, 그 작은 광선을 깨자마자 문이 웅웅
소리를 내며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얼마나 빨리 손을 빼는지 보았습니다.
이렇게 허공에 손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들은 그
일이 성공할 것이라고 정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만져야
했고, 무엇을 해야 했나요? 느낌. 그러나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료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고 수건을 찾아보던 기억이
납니다. 수건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화장실이야?

그 당시 벽에는 "손을 말리려면 손을 상자 아래에 놓으십시오"라고 적힌 흰색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밑에서 손을 말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이 있나요? 당신은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물론 그 작은 흰색 상자 바로 아래에는 그 작은 빗줄기가 있었고, 거기에 손을 올리자마자 zhzzhhhh.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열을 얻었습니다. 효과가 있지 않았나요? 하지만 당신은 하루 종일 거기 서서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증명할 수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식수대입니다. 땀을 것이 없습니다. 바꿀 것도 없고 그냥 "마셔요"라고만 말합니다. 그 분수 꼭대기 바로 맞은편에는 작은 빛의 광선이 있습니다. 이제 주위를 둘러보고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마른 노즐을 빨다가 들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당신이 그 오래된 물건을 거기 아래로 떨어뜨리자마자, 울롤워. 대부분의 경우 올라가서 살펴보고 손을 먼저 올려 젖게 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믿지 않는 한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를 한 번도 믿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장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크리스천은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이 놓치고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내가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를
흘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것입니다.

커밋

책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이를 확장한 것입니다. 기이. 이제 한 마디만
더 하면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에 비추어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들은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라 주의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여호와의 백성을 가리켜
말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주의
종이 형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사람 앞에서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느니라”(느헤미야 1:10-11).
나중에 볼 수 있듯이 이 구절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운명, 주권과 인도에 완전하고 절대적인 헌신을 했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말하자면 자기 주위에 원을 그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 원 안에 모든 것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처분에 내 자신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책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헌신을 한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다 됐다. 정말 끔찍하지 않니?